

평양 안학궁 유적의 축조 시기와 성격 문제 재론*

기경량**

〈차 례〉

1. 머리말
2. 안학궁 유적과 대성산 기슭 고분군의 관계
3. 안학궁 유적 출토 기와의 연대 문제
4. 맺음말

[국문초록]

안학궁 유적은 지금의 평양시 대성구역 안학동에 위치한 유적이다. 이 유적은 오랜 기간 고구려 시기의 궁성으로 보아 왔으나, 일본 학계를 중심으로 고려 시기 축조설이 대두되어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안학궁 유적은 고려 定宗代(재위 945~949) 서경으로의 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영되다가 폐기된 왕궁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안학궁 유적의 건축물 하부의 문화층에서는 고구려 고분이 확인된 바 있다. 북한 학계의 보고서를 통해 소개된 것은 3기이지만, 발굴 후기 등을 참조하면 실제로는 십여 개의 고분이 확인되었으며 그 위치도 궁전 건축지의 중심부이다. 따라서 대성산 기슭에 분포되어 있는 고구려 고분군의 일부를 파괴하고 그 위에 왕궁이 들어선 정황은 분명하다.

안학궁 유적에서 출토된 수막새 기와와 암막새 기와 대부분은 고구려 시기의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통일신라~고려 시기의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합당하다. 일부 고구려 시기의 것으로 언급되는 기와도 있으나 소량에 불과하다. 안학궁 일대가 고구려 유적지의 한복판임을 감안하면 혼입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안학궁 유적에서 출토된 귀면와의 경우 정치적 혼란으로 인하여 귀면와 제작의 전통이 쇠퇴한 9세기 말 이후 나말여초 시기에 제작되었던 귀면와의 품격과 상통한다. 이는 해당 유적의 축조 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로 이해할 수 있다.

[주제어] 안학궁, 외당, 고려 왕궁, 定宗

* 본 연구는 2020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가톨릭대학교 국사학과 조교수

1. 머리말

안학궁 유적은 지금의 평양시 대성구역 안학동에 위치한 유적이다. 흙으로 쌓아 올린 마름모꼴의 성벽 안에 대규모 건축 유적이 남아 있으며, 성벽 둘레는 2,440m이고, 면적은 37만 2,100㎡이다.¹⁾ 안학궁 유적의 축조 시기와 성격 문제는 고구려 왕도·도성사 연구에서 연구자 간 이견의 폭이 가장 큰 논쟁적 주제이다.

조선 초에 편찬된 『新增東國輿地勝覽』의 평양부 고적조에 따르면 안학궁 유적은 ‘長安城’이라는 항목 아래 서술되고 있다.²⁾ 이를 통해 조선 시대에 이 유적을 586년(평원왕 28) 고구려 평원왕대에 이도한 장안성으로 오인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안학궁 유적을 고구려의 것으로 인식하였던 연원은 최소한 조선 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셈이며, 고려 말에도 그러한 인식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안학궁 유적의 성격에 대해 근대적 연구를 開始한 사람은 일본 학자 세키노 다다시(關野貞)이다. 그는 『周書』에 실려 있는 “치소는 평양성이다. 그 성은 동서로 6리이고, 남쪽으로는 패수에 임해 있다. 성 안에는 오직 창고를 채우고 무기를 쌓아 방비하니, 적이 이르는 날에는 모두 들어가 굳게 지킨다. 왕은 그 곁에 따로 집을 지어 놓아서 항상 거기 머무르지는 않는다”³⁾는 기록

1) 채희국, 『대성산-평양성』, 조선로동당출판사, 1963, 23~25쪽. 이와 별개로 “네 성벽의 길이가 각각 622m이고, 둘레가 2,488m이며, 면적이 38만㎡가 넘는다”는 식의 서술도 존재한다(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조선유적유물도감3-고구려편(1)』, 1989(영인본, 민족문화, 1993, 19쪽; 전제현·손량규, 『고구려력사연구-안학궁유적과 일본에 있는 고구려관계 유적, 유물』,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5, 7쪽). 여기서 둘레 길이 2,488m는 1973년 보고서에서 남쪽 성벽의 길이라고 표기된 622m(김일성종합대학 고고학 민속학강좌, 『대성산의 고구려 유적』, 김일성종합대학출판부, 1973, 109쪽)를 정확히 4배로 곱한 수치이다. 따라서 실측이 아니라 계산으로 산출된 수치로 짐작된다. 필자가 구글 어스를 통해 측정한 수치는 성벽 길이 2,455m, 면적 37만 6,083.㎡였다(성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측정). 이는 전자에 보다 가까운 수치이다. 15m 정도의 수치 차이는 측정 기준점의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오차 범위로 이해하여도 좋을 것이다. 이에 필자는 북한 학계에서 제시한 두 개의 성벽 둘레 길이 중 실측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2,440m라는 수치를 기준으로 사용하겠다.

2) 『新增東國輿地勝覽』, 卷51, 平安道, 平壤, 古跡, “長安城: 在大城山東北 土築 周五千一百六十一尺 高十九尺 高句麗平原王二十八年 自平壤移居于此 城中有安輪宮古址.”

3) 『周書』 卷49, 列傳41, 異域 上 高麗, “治平壤城 其城東西六里 南臨涇水 城內唯積倉儲器備 寇賊至日 方入固守 王則別爲宅於其側 不常居之.”

에 주목하였다. 이에 고구려의 ‘도성’은 평상시에 왕이 머무는 평지성과 비상시에 들어가 농성하는 산성의 조합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는 ‘산성-평지성 세트’ 모델을 창안하고, 자신이 제시한 모델의 전형으로 대성산성과 안학궁 유적의 조합을 제시하였다.⁴⁾

하지만 세키노는 이후 진행된 조사 과정에서 안학궁 유적 출토 기와가 상당히 뒷 시기의 것임을 확인하게 된다. 이에 古式의 기와가 공히 출토되는 ‘대성산성-청암동 토성’ 조합을 새로운 ‘산성-평지성 세트’ 모델로 제시하였다. 안학궁 유적은 ‘평지 도성’으로서의 지위를 빼앗기고, 고구려 말기에 조성된 별궁으로 재평가되었다.⁵⁾

일본 학계에서는 세키노가 제시한 ‘대성산성-청암동 토성’의 조합으로 고구려의 전기 평양성 시기를 이해하는 것이 여전히 통설적 지위를 점하고 있다.⁶⁾ 다만 안학궁 유적의 축조 시기에 대해서는 세키노의 설에 따라 한동안 고구려 말기로 보다가 이제는 고려시대로 연대를 크게 내려보는 견해가 우세를 점하는 분위기이다.⁷⁾ 이는 해방 이후 북한 학계에서 수행한 안학궁 유적 발굴 내용에 일본 학계의 분석과 평가를 더한 결과이다.

북한 학계에서는 대성산 일대에 대규모 유원지를 건설하게 된 것을 계기로, 1958년부터 대성산성과 안학궁 유적 일대에 대한 대대적인 발굴 조사를 진행하였다. 1964년에 그 결과물을 정리하여 발굴 보고서를 간행하였고,⁸⁾ 1973년에는 발굴 보고서의 내용을 보강한 『대성산의 고구려유적』을 정식 출

4) 關野貞, 「國內城及丸都城の位置」, 『史學雜誌』 25-11, 1914, 11쪽.

5) 關野貞, 「高句麗の平壤城と長安城に就いて」, 『史學雜誌』 39-1, 1928, 28쪽.

6) 田村晃一, 「高句麗の山城—大聖山城の場合」, 『月刊考古學ジャーナル』 121, 1976, 5쪽; 田村晃一, 「高句麗の城郭について」, 『百濟研究』 19, 1988, 156쪽; 千田剛道, 「清岩里廢寺 安鶴宮」, 『文化財論叢: 奈良国立文化財研究所創立30周年記念論文集』, 同朋社, 1983, 1034쪽; 田中俊明, 「高句麗の平壤遷都」, 『朝鮮學報』 190, 2004, 51~52쪽.

7) 永島暉臣慎, 「高句麗の都城と建築」, 『難波宮址の研究7—論考篇』, 大阪市文化財協會, 1981, 253쪽; 關口廣次, 「瓦當文様雜考—高句麗の瓦當文様を中心として」, 『考古學ジャーナル』 285, 1987, 25~26쪽; 千田剛道, 「高句麗·高麗の瓦—平壤地域を中心として」, 『朝鮮の古瓦を考える』, 帝塚山考古學研究所, 1996, 16쪽; 千田剛道, 「高句麗都城研究と平壤安鶴宮遺跡」, 『文学·芸術·文化: 近畿大学文学部論集』 22, 2011, 74~77쪽; 田中俊明, 「高句麗の平壤遷都」, 『朝鮮學報』 190, 2004, 45~49쪽.

8) 채희국, 「대성산 일대의 고구려 유적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원출판사, 1964(『북한고고학술총서 13-유적발굴보고 9』, 民族文化, 1989).

간하며 그간의 발굴 성과를 집대성하였다.⁹⁾

발굴을 주도한 채희국은 ‘대성산-평양성’이 4세기 말부터 대대적으로 건설되기 시작하였고, 대성산성과 안학궁이 건설되고 난 이후인 427년에 장수왕이 이곳으로 천도하였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평양으로 천도한 427년부터 장안성으로 재차 移都한 586년까지 160년간 ‘대성산성-안학궁 일대’가 수도 역할을 하였다고 이해한 것이다.¹⁰⁾ 이는 지금도 북한 학계에서 통설적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북한의 일부 학자들은 안학궁 유적의 축조 연대를 이보다 앞당겨 3세기 초부터 이미 건설되어 활용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¹¹⁾

일본 학계에서는 북한에서 1960~1970년대 출간한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고려시대 축조설이 대두되며 주류적 흐름을 형성하였다. 그 핵심 근거는 크게 두 가지로, 첫째 보고서에서 소개된 안학궁 유적 출토 와당의 연대가 도저히 고구려 시기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고, 둘째 안학궁 유적 조영 당시 파괴된 하부 문화층의 고분이 고구려의 것이므로, 그 위에 축조된 안학궁 유적을 고구려의 것으로 보기 곤란하다는 것이다.

남한 학계에서도 안학궁 유적을 고려시대의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일부 존재한다.¹²⁾ 하지만 여전히 고구려 유적으로 보려는 경향이 강하다. 백과사전이나 개설서, 혹은 전문 연구서나 논문에서도 안학궁 유적을 고구려의 것으로 당연하게 전제한 후 서술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에는 안학궁 유적을 100년 넘게 고구려 유적으로 간주해 왔던 관성이 작용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남북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해당 유적에 대한 연구자들의 직접적인 조사가 불가하고, 자료에 대한 적극적인 판단이 어려운 데서 오는 여건상의 제약 또한 큰 원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9) 김일성종합대학 고고학 민속학강좌, 앞의 책.

10) 채희국, 앞의 책, 42~47쪽.

11) 전제현·손량구, 앞의 책, 97쪽.

12) 朴淳發, 「高句麗의 都城과 墓域」, 『韓國古代史探究』 12, 2012; 기경량, 「평양 안학궁 유적의 축조 및 사용 시기」, 『한국고대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 문헌, 문자, 물질』, 진인진, 2021; 辛奇羅, 「안학궁 유적의 연대 문제 재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원 문화유산융합과 석사학위논문, 2021.

필자는 안학궁 유적의 축조 시기를 고려 초 定宗代(재위 945~949)로 지목하는 試論的인 글을 발표한 바 있다.¹³⁾ 이 글에서는 당시 지면의 제약 때문에 충분히 다루지 못하였던 내용을 추가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그간 필자의 견해에 동의하는 후속 연구가 등장하기도 하였지만, 필자와 의견을 달리하는 연구도 발표된 바 있다. 따라서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 충실하게 의견을 개진하여 본 주제에 대한 학계의 논의가 보다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미력을 더하고자 한다.

2. 안학궁 유적과 대성산 기슭 고분군의 관계

안학궁 유적 축조 시기 논쟁과 관련해 중요한 근거로 언급되는 것이 이 일대에 형성된 고분군과의 관계이다. 1964·1973년 북한 학계의 보고에 따르면 안학궁 유적 궁전 건축물 아래 토층에서 석실분 3기가 확인되었다. 다나카 도시아키(田中俊明)는 이 석실분들을 5세기 말~6세기 초에 등장하는 양식으로 이해하였다. 따라서 이를 파괴한 후 그 위에 지어진 안학궁 유적은 427년 장수왕의 평양 천도 당시의 왕궁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더 나아가 고구려의 중심 묘역을 파괴하고 궁전을 조영하는 행위는 같은 국가 내에서 벌어진 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¹⁴⁾

하지만 북한 학계에서는 해당 석실분이 2세기 말~3세기 초에 해당하는 무덤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¹⁵⁾ 2세기 초~3세기 말·4세기 초의 무덤이라고 언급하기도 한다.¹⁶⁾ 이 주장에 따르면 무덤 조영 연대가 장수왕의 평양 천도 시점보다는 이르기 때문에, 427년에 기존 고분군을 파괴하고 왕궁을 조영하였다고 보는 데 시간적인 문제는 없는 셈이다. 하지만 고구려는 313년에 이

13) 기경량, 위의 논문.

14) 田中俊明, 앞의 논문, 45쪽.

15) 전제현·손량구, 앞의 책, 92~95쪽.

16) 리영식, 『안학궁터에서 알려진 고구려 무덤들의 축조연대에 대하여』, 『고구려 안학궁 조사보고서 2006』, 동북아역사재단, 2006, 208쪽; 212~213쪽.

르러서야 낙랑군을 병탄하며 평양 일대를 영역화하였다. 또한 이 무렵 고구려의 중심 묘제는 적석총이었다. 따라서 해당 석실분의 조영 시기를 2세기 말~3세기 초까지 올려 보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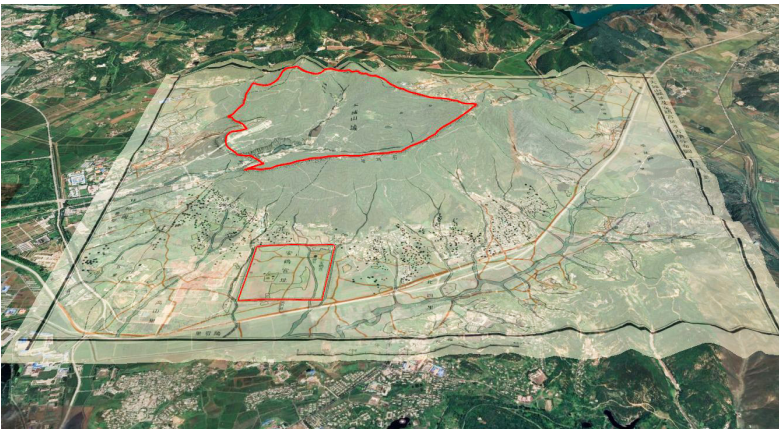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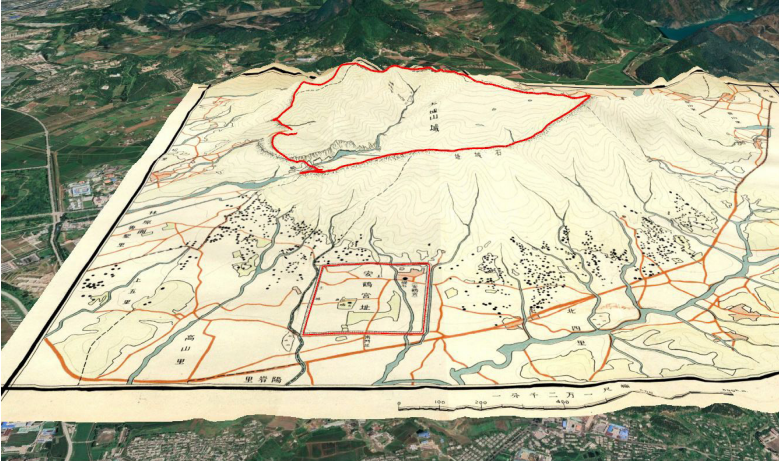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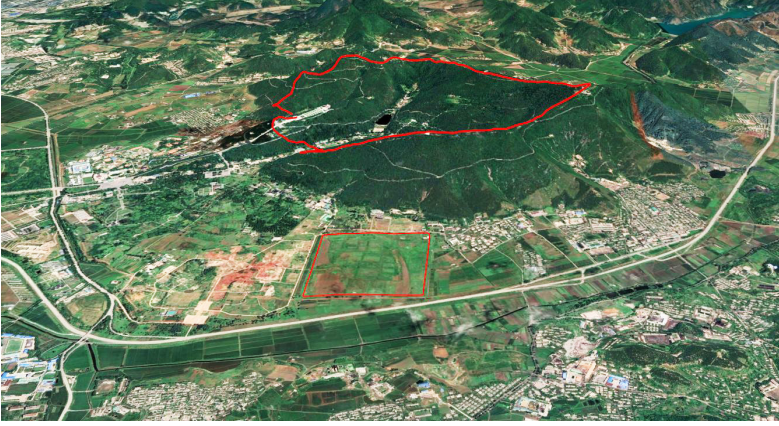
다나카가 제시한 것처럼 해당 양식의 무덤이 5세기 말~6세기 초부터 등장하였다고 단정하기에도 불안한 부분이 없지는 않다. 유사한 형태의 석실분이 고구려 전역에서 확인되고, 무벽화 석실분의 경우 특정 형식의 출현과 지속 시기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지적도 있다.¹⁷⁾ 만약 해당 유형의 무덤이 조영되기 시작한 시기가 다나카가 제시한 시점보다 약간 이른 4세기 말~5세기 초이기만 해도 427년에 이를 파괴하고 왕궁을 건설하는 상황은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아직은 불확실한 무덤 편년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핵심 논거로 삼는 것은 조심스럽다.

그보다는 고구려 고분군 한가운데 왕궁이 파고들어 자리하고 있는 어색한 상황, 그리고 기존의 묘역을 파괴하고 그 위에 왕궁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조영 주체 간의 정서적 단절이 감지된다는 점이 보다 주목되는 요소이다. 이에 필자는 기 논문에서 일제 시기(1929년)에 조선총독부에서 대성산성 및 안학궁 유적 일대를 조사하며 작성한 근대 고지도를 활용하여 안학궁 유적이 대성산 기슭에 조영된 고구려 고분군을 파괴하고 조영된 정황을 언급한 바 있다. 최근 이에 대한 반론이 있었다.

임기환은 대성산 남쪽 기슭에 형성된 고분군에 대해서 안학궁 유적을 기준으로 서쪽 고분군과 동쪽 고분군이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지도의 등고선 상으로 보았을 때 서쪽 고분군이 조금 더 높은 위치에, 동쪽 고분군은 보다 낮은 위치에서 높은 고분 밀도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포 양상으로 보았을 때 안학궁 서쪽과 동쪽의 고분군은 하나의 고분군으로 연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고분군의 파괴가 안학궁 내부에서 전면적이라고 볼 근거도 없다고 하였다.¹⁸⁾ 이러한 주장은 대성산 남쪽 기슭에 조영된 고분들보다 안학궁의 조영이 선행되었고, 안학궁

17) 양시은, 『도성체제』, 『고구려 고고-유적 편』, 동북아역사재단, 2021, 50쪽.

18) 임기환, 『고구려 평양도성 논의에 대한 재검토』, 『고구려발해연구』 70, 2021, 38쪽.





〈그림 1〉 안학궁 유적과 대성산 기슭 고분군의 분포 상황

출처 : 朝鮮總督府, 『古蹟調査特別報告 第5冊(高句麗時代遺蹟 圖版 上冊)』, 1929, 지도3을 이용하여 필자 작성

비고 : 안학궁 주변의 물줄기 A, B, C는 필자가 표기

동서의 고분군은 이미 존재하고 있던 왕궁을 피하여 조영된 것이라는 과거 견해를 보강하기 위하여 전개된 것이다.

그는 현재 안학궁 유적의 건물 분포 양상 그대로 고구려 시대의 궁성이 존재하였다고 보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면서도, 대성산성 아래 자리 잡은 안학궁 유적의 입지상으로 볼 때 왕궁성으로서의 정치적 권위를 구현하는 경

관적 성격에 부합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안학궁 유적에 위치하였던 고구려 왕궁성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문자명왕대 이후 안학궁성이 조영되었으리라 본 과거의 견해를 유지하였다.¹⁹⁾

이에 필자는 구글어스의 오버레이 기능을 이용하여 1929년 지도를 실제 지형과 매칭시켜 고분군의 분포 실상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1929년 지도와 현재의 위성 사진을 기반으로 구현된 지형을 일치시킨 후 지도의 투명도를 조절하면, 해당 고분들의 정확한 위치와 분포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서쪽 고분군과 동쪽 고분군 모두 경사가 급한 대성산의 산줄기가 끝나고 완만한 경사가 시작되는 경계 부근부터 무덤들이 위치함을 알 수 있다. 즉 양자가 딱히 다른 고분 분포 양상을 보인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 지도에서 주의해 보아야 할 부분은 대성산의 남쪽 골짜기와 기슭에서 남향으로 흐르는 여러 개의 작은 물줄기이다. 이는 합장강으로 흘러드는 지류인 소하천으로서, 대성산 南麓의 고분군을 여러 개의 소구역으로 구획하는 자연 경계선이다. 그 지류 중 일부는 안학궁 서쪽(A)과 동쪽 성벽(C) 바깥쪽을 따라 흐르면서 해자 역할을 하고 있고, 하나의 줄기는 안학궁 유적을 관통(B)하여 북쪽 성벽과 남쪽 성벽의 水口門을 통해 흘러내리고 있다.

임기환은 서쪽 고분군의 일부가 안학궁 북벽의 서쪽 구간 일부에만 확인된다고 지적하였다.²⁰⁾ 그런데 안학궁 북쪽 성벽 바깥에 분포한 무덤 범위는 바로 이 물줄기들로 인해 자연 구획된 범위와 일치한다. 안학궁 서쪽 성벽 밖을 흐르는 물줄기(A)와 안학궁 유적을 관통하는 물줄기(B)가 하나의 소구역 형성하고 있는데, 안학궁 북쪽 성벽 바깥쪽의 무덤군은 바로 이 사이 공간에만 분포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B와 C 사이에는 고분이 산기슭에 단 1기 존재할 뿐이다. 전체 형상을 보면 안학궁 유적은 A와 B 사이 구역 고분군의 남쪽 부분을 파괴하고 들어섰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

북한 학계가 발굴을 통해 소개한 안학궁 유적 하부의 고분은 3기이다. 하

19) 임기환, 위의 논문, 53~54쪽; 임기환, 「고구려 평양 도성의 정치적 성격」, 『韓國史研究』 137, 2007, 17쪽.

20) 임기환, 위의 논문, 38쪽.

지만 안학궁 유적 발굴조사에 직접 참여하였던 전제헌의 증언에 따르면 원래 궁전터 밑에는 10여 기에 달하는 고구려 무덤이 발견되었고 그중 비교적 잘 남아 있는 3기의 무덤만 발굴하여 소개한 것이라 한다.²¹⁾



〈그림 2〉 안학궁 유적 건물 배치 및 무덤 출토 현황

3기의 무덤 중 가장 정확하게 위치가 파악된 안학궁 1호 무덤의 경우 중궁 1호 건물의 앞채와 뒷채 사이 동쪽 공간에 자리하고 있었다. 또한 2006년 남북 학자 공동 조사 보고서에 실린 전제헌에 회고담에 따르면 중궁 1호 궁전터의 뜰²²⁾에서도 여러 기의 무덤이 확인되었으며, 중궁의 서쪽 궁전터(중궁 제3호 궁전) 부근에서도 석실분 1기가 발견되었다.²³⁾ 구체적인 도면 등의

21) 전제헌·손량구, 앞의 책, 5쪽.

22) 중궁 1호 궁전터 건물의 앞채와 뒷채 사이 자리한 궁터로 이해된다. 1973년 보고서에서는 이곳 좌우에 일정한 공간을 마련하여 화단을 조영한 흔적이 있다고 보았다.

23) 전제헌, 『안학궁터 발굴의 나날을 더듬어 보며』, 『고구려 안학궁 조사보고서 2006』, 동북아역사재단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증언에 따르면 안학궁 유적에서 고분의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은 안학궁 유적의 중심부에 해당하는 중궁 일대로 파악할 수 있다. 중궁 일대에서 확인된 10여 기의 무덤은 앞서 살펴본 안학궁 유적의 북성벽 바깥 고분군과 같은 그룹으로, ‘A-B 소구역 고분군’의 일단으로 이해하는 게 합당할 것이다.²⁴⁾

임기환은 또한 안학궁 유적의 동벽 부근의 고분 밀집도가 높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안학궁 유적을 경계로 서쪽 고분군과 동쪽 고분군의 불연속성을 지적한 것이다. 동벽 부근의 고분 밀집도가 높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 안학궁 유적의 동쪽 성벽 일대가 주변보다 고분을 조영하기 불리한 지형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1929년 지도를 보면 다른 구역에서도 소하천과 바로 인접한 지대는 상대적으로 고분의 밀집도가 떨어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소하천 인접지가 저지대이기 때문에, 무덤을 조영하기 적절한 조건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안학궁 동벽 부근은 B와 C의 2개 소하천이 유독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V’ 형태로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더욱 가까워지는 형상을 띠고 있다. 그리고 안학궁 성벽 동남쪽 모서리 바깥에서 두 물줄기는 결국 합류하여 하나의 물줄기가 된다. 물줄기 2개가 인접하여 흐른다는 점에서 안학궁 동벽 부근이 이 일대에서 가장 저지대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앞서 C 물줄기는 안학궁 동벽의 해자 역할을 하였다고 하였다. 북한 학계에서 안학궁 유적 동벽 바깥쪽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성벽에서 4.9m 떨어진 곳부터 해자가 시작된다. 성벽과 해자 사이에는 돌과 진흙을 섞어 너비 3.5m, 높이 40cm의 독을 쌓았다. 그 바깥쪽에 존재하는 해자 유적은 약 1m 깊이부터 검은 감탕흙이 존재하였다고 한다. 보고지는 조사 당시에도 이곳에서 물이 많이 솟아 나왔다고 증언하며, 해자의 너비는 80~120m 가량 되었으리라 추정하였다.²⁵⁾ 이러한 증언은 안학궁 유적 동벽 일대가 주변보다 상

단, 2006, 178쪽.

24) 필자의 소견으로는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서궁 일대에도 석실분이 일부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며, 안학궁 북문 부근에 조성된 인공산 아래에는 상부 구조까지 보존된 고분도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대적으로 저지대였을 것이라는 앞에서의 추정을 뒷받침한다. 땅을 파면 물이 솟아나고 고이는 지역이므로 무덤을 축조하기에 적합하지 않았을 것이다. 안학궁 유적 동벽 일대에 고분의 밀집도가 낮은 이유는 안학궁의 존재 때문이 아니라, 자연 지형 조건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림 3〉 일제 시기 안학궁 유적 동북쪽 모서리의 지형과 토지 이용 현황

출처 : 朝鮮總督府, 『古蹟調査特別報告 第5冊(高句麗時代遺蹟 圖版 上冊)』, 1929, 지도3의 일부.

비고 : 지도상 붉은색 면적에 '畝'라고 표현된 곳은 당시 자연마을 집자리를 나타낸 것이고, 그 주위에 '田'이라고 표현되어 있어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5) 김일성종합대학 고고학 민속학강좌, 앞의 책, 141쪽. 참고로 서쪽 해자의 경우는 성벽에서 1.6m 떨어진 거리에서 시작되며, 너비는 80m 정도로 추정되었다.

둘째, 1929년 당시 동벽 부근 지역의 고분이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일제 시기 자료를 보면 안학궁 성벽 내부 동북쪽 모서리의 동궁 유적 일대에는 자연마을이 존재하였다. 해방 이후 북한 학계에서 안학궁 유적을 발굴 조사할 때도 성벽 내에 살고 있던 30여 호로 이루어진 마을 주민들을 내보내야 했다고 한다.²⁶⁾ 자연마을이 형성된 시점이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일대가 해당 마을 사람들의 경작지였다는 점이다. 경작지 자체는 매우 넓게 분포하였지만, 마을과 인근한 곳이었던 만큼 안학궁 유적 동벽 부근의 지표상에 있던 고분들은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훼손되어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상의 정황을 살펴보면 대성산 남쪽 기슭 고구려 고분군의 분포 형태, 그리고 고분군 일부를 파괴하고 들어선 안학궁 유적의 상관성은 비교적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발굴을 수행한 북한 학계가 고분 조영 문화층과 궁전 조영 문화층의 시간적 선후와 층위 관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이해를 전제로 안학궁 유적 조영 시기와 성격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림 4〉 1916년 무렵 안학궁 동북쪽 성벽 인근의 자연마을 전경

출처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유리건판 '건판 004270'

비고 : 대성산 위에서 남쪽을 바라보며 촬영한 사진. 사진상 위쪽이 남향, 아래쪽이 북향.

26) 전제헌, 앞의 논문, 172쪽; 179쪽.

3. 안학궁 유적 출토 기와의 연대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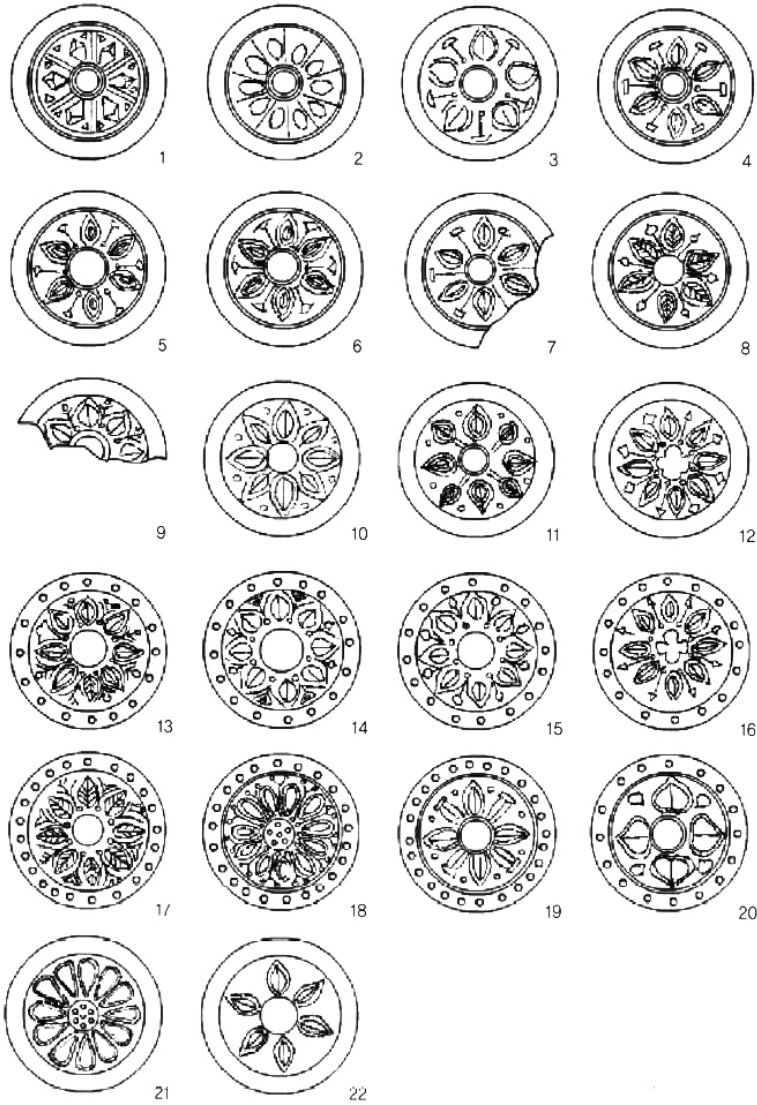
안학궁 유적 축조 시기 논쟁에서 가장 첨예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이 와당 유물이다. 안학궁 유적에서 출토된 막새기와에서는 周緣部에 連珠文 장식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통일신라시대 이후의 와당에서 보이는 특징이다. 또한 안학궁 유적에서는 암막새가 다수 출토되었는데, 이 역시 다른 고구려 유적에서는 출토된 사례가 전무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암막새 역시 일반적으로 통일신라시대 이후 사용되었던 기와이다. 다른 고구려 건축 유적에서 출토된 기와들이 붉은색인 데 반해 안학궁 유적 출토 기와 대다수가 청회색을 띠고 있다는 점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북한 학계에서도 이러한 안학궁 유적 출토 기와의 이질성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학계는 이를 편년(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유적의 특수성(공간) 문제로 설명하고 있다. 왕궁이라는 특별한 장소에서 사용한 기와이기 때문에 형식 면에서 일반 건축물에서 사용하였던 기와들과는 구분되는 특성을 지닌다는 것이다.²⁷⁾ 그러나 이는 그다지 설득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북한 학계의 설명대로라면 또 다른 왕성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던 대성산성의 고구려 유적이거나, 후대 왕궁이 존재했던 것이 분명한 장안성의 고구려 유적 등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야 할 것이다. 하지만 다른 유적에서는 그러한 양상이 보이지 않으며, 오직 안학궁 유적에서만 예외적으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인접한 대성산성의 유적에서는 암막새가 확인되지 않았고, 기와의 색도 붉은색이다. 북한 학계에서는 크고 웅장한 건물에는 회색 기와가 잘 어울리고 작고 간단한 건물에는 붉은 기와가 잘 어울리므로, 고구려인들이 구분하여 사용하였다고 설명하기도 한다.²⁸⁾ 하지만 대단히 크고 웅장한 규모를 자랑하는 대성산성의 남문 유적에서도 회색 기와가 아닌 붉은 기와가 출토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은 모순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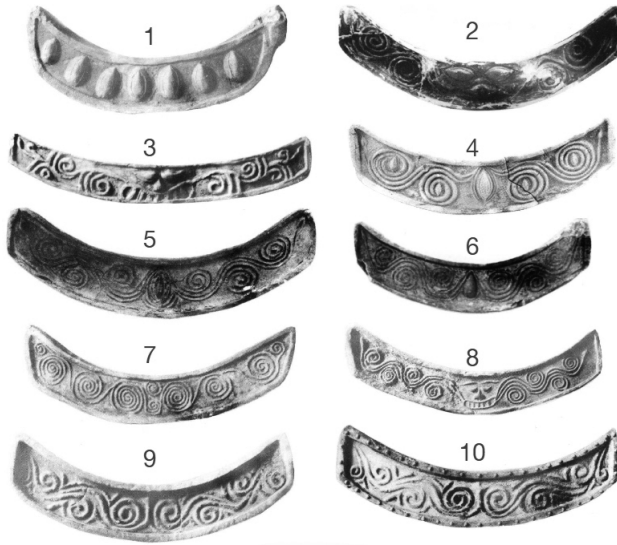
27) 채희국, 앞의 책, 57~58쪽; 76쪽; 전제현·손량구, 앞의 책, 95쪽; 김경삼, 『안학궁터에서 나온 수키와 막새 무늬에 대하여』, 『고구려 안학궁 조사보고서 2006』, 동북아역사재단, 2006, 239~242쪽.

28) 김일성종합대학 고고학 민속학강좌, 앞의 책, 1973, 94쪽.



〈그림 5〉 안학궁 유적 출토 수막새 기와 문양(22종)

출처 : 김경삼, 『안학궁터에서 나온 수키와 막새 무늬에 대하여』, 『고구려 안학궁 조사보고서 2006』, 동북아역사재단, 2006, 238쪽.



〈그림 6〉 안학궁 유적 출토 암막새 기와 문양(10종)
출처 : 김일성종합대학 고고학 민속학강좌, 『대성산의 고구려 유적』, 김일성종합대학출판부, 1973, 216~219쪽.

안학궁 유적에서 출토된 와당의 후대성에 대하여 番瓦나 改瓦의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한다.²⁹⁾ 그러나 이것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안학궁 유적에서만 유독 번와나 개와가 있었고, 대성산성 유적이거나 장안성 유적에서는 그러한 관리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므로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번와나 개와의 가능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안학궁 유적 출토 와당이 시간적으로 후행할지언정 어쨌든 고구려 기와라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암막새나 연주문이 있는 수막새 등은 통일신라시대 이후에나 사용되는 것이다. 애초에 안학궁 유적에서 출토된 와당 대다수가 고구려의 것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고구려 후기의 번와와 개와 가능성을 논하는 것은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 통일신라가 변경에 해당하는 대동강 북쪽에 대규모 왕궁을 조영하는 일을 상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안학궁 유적 출토 유물은 역시 고려시대의 것으로

29) 閔德植, 『高句麗 平壤城의 都市形態와 設計』, 『高句麗研究』 15, 2003, 123쪽.

이해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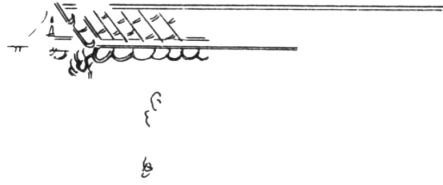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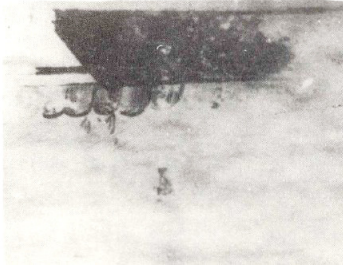
안학궁 유적에서 출토된 수막새 와당들은 문양뿐 아니라 제작 기법상으로도 고구려의 것으로 보기 힘들다는 연구가 있다. 고구려 와당의 경우 수기와 접합하는 과정에서 와당 뒷면에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해 긁어낸 흔적이 보이는 게 일반적인데, 안학궁 출토 와당들에서는 그러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³⁰⁾ 그 외에도 안학궁 유적 출토 평기와와 문양 요소, 암막새와 수막새의 문양과 접합기법, 퇴화된 양식의 귀면와 문양, 치미가 치문으로 변해가는 남북국시대의 과도기적 현상으로 추정되는 치미의 비늘 문양 등 출토 유물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안학궁 유적이 고려 초에 조성되었다고 판단한 연구가 있다.³¹⁾

이중 암막새 문제에 대해서는 필자 역시 전고에서 다룬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구체적인 논의를 생략하겠다. 다만 북한 학계에서는 고분 벽화를 통해 고구려가 암막새를 사용하였음이 증명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어, 그 타당성을 간단히 검토하도록 하겠다. 북한 학계에서도 안학궁 유적을 제외한 다른 고구려 유적에서는 암막새의 실물 자료가 나온 사례가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고산동 고분군에 있는 ‘식물원 9호(고산동 7호)’ 고분 벽화의 건물 그림에 암막새가 그려진 것을 보면 고구려 당시에 암막새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³²⁾

30) 주홍규, 「고구려 기와의 분류와 특징에 관한 일고찰」, 『先史와 古代』 41, 2014, 102~10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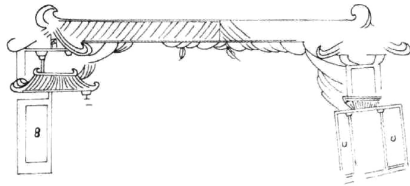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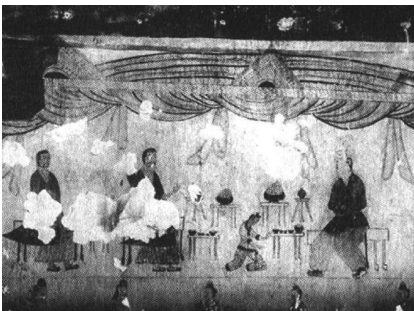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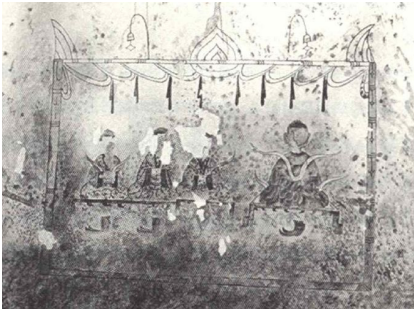
31) 辛旣羅, 앞의 논문.

32) 김일성종합대학 고고학 민속학강좌, 앞의 책, 295~298쪽; 리광휘, 「기와의 질그릇을 통해 본 안학궁의 존속연대」, 『고구려 안학궁 조사보고서 2006』, 동북아역사재단, 2006, 230쪽. 리광휘의 글에서는 해당 고분벽화가 ‘식물원 7호 무덤’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오류로 보이며, 정확히는 ‘식물원 9호 무덤’이자 ‘고산동 7호 무덤’이다. 양자는 같은 무덤으로, 채희국의 1964년 보고서 44~45쪽에서도 ‘고산동 7호 무덤’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강현숙은 고산동 7호 무덤을 마선구 1호 분과 구조가 유사하다고 보고 4세기 말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하였다(강현숙, 「평양 안학궁, 대성산성 시기 왕궁 주변 고구려 고분의 고고학적 함의」, 『韓國上古史學報』 105, 2019, 131쪽).



〈그림 7〉 식물원 9호 무덤의 벽화와 모사도

출처 : 김일성종합대학 고고학 민속학강좌, 『대성산의 고구려 유적』, 김일성종합대학출판부, 1973, 296~297쪽.



〈그림 8〉 휘장이 그려진 고구려 고분 벽화의 사례

(좌상 : 수렵총, 우상 : 쌍영총, 좌하 : 무용총, 우하 : 통구 12호분 복분)

출처 : 전호태, 『고구려 벽화고분의 과거와 현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20, 239쪽; 299쪽; 370쪽; 385쪽.

그러나 식물원 9호 무덤의 벽화가 암막새를 묘사한 것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모사도만 본다면 그렇게 오인할 여지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실제 벽화의 사진 자료를 보면 이는 막새를 묘사한 것이 아니라 늘어져 있는 휘장을 묘사한 것으로 파악된다. 고구려 고분 벽화 중에는 묘주가 휘장이 드리워진 장방 생활을 하는 모습이 묘사된 경우가 많다. 수렵총 널방의 북벽 묘주도, 쌍영총 널방 북벽 묘주도, 각저총 널방 안벽 묘주도, 무용총 널방 안벽의 묘주도 등이 대표적이다. 기와 지붕 아래 휘장이 그려진 사례로는 통구 12호분 북분 널방 벽화를 예시로 들 수 있다.

식물원 9호분 벽화도 그러한 케이스로 여겨진다. 식물원 9호 무덤 벽화의 왼쪽 부분을 보면 곡선으로 늘어진 휘장 아래 길게 늘어뜨린 천의 상단으로 추정되는 형태가 부분적이거나 확인된다. 또 아래쪽에 희미하게 흔적이 보이는 것은 인물상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고분 벽화의 내용을 통해 고구려가 암막새를 사용하였던 사실이 증명되었다는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

다음으로 안학궁 출토 귀면와 문양 문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귀면와는 지붕에서의 위치에 따라 마루용과 사래용의 두 종류로 나뉜다. 그중 마루용은 기왓등에 올리기 편하도록 하부에 반원형 홈을 두었다. 사래용은 겹처마의 네 귀퉁이 추녀 끝에 잇대어 단 네모지고 짧은 서까래인 사래 끝부분에 부착하는 것인데, 못을 박아 고정할 수 있도록 상단에 못 구멍을 뚫어 놓은 것이 특징이다.³³⁾ 안학궁 출토 귀면와는 모두 귀면의 이마 내지 미간 부분에 못 구멍이 뚫려 있으므로 사래용으로 볼 수 있다.

신라의 사례를 보면 귀면와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문양으로 뿔, 寶珠, 雲氣文, 連珠文 등이 있는데, 9세기대에 이르면 과거와 달리 세부 표현에서 뿔과 보주가 사라지고, 운기문과 연주문도 간략해지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한다. 그러다가 9세기 말 이후가 되면 정치적 불안으로 인하여 왕실 및 수공업 생산체제가 붕괴되고 귀면와 제작 전통이 크게 쇠퇴하면서 문양의 평면화와 간소화가 현저해진다.³⁴⁾

33) 윤용희, 「신라 귀면와의 문양 형식과 변천에 관한 일고찰」, 『영남고고학』 89, 2021, 226~227쪽.

34) 윤용희, 위의 논문, 242~243쪽.

신라 7세기 후반					
	홍륜사지	월성	월지	사천왕사지2	감은사지3
신라 8세기 후반					
	나정	월지	재매정지	사천왕사지4	월성
신라 9세기 전~중반					
	송복사지	월지	금장리	월지	
신라 9세기 말 이후					
	인왕동	감은사지	분황사지		
안학궁 유적 출토 귀면와					
	남궁 3호 궁전	중궁 1호 궁전	남궁 1호궁전, 중궁 1호궁전, 북궁 2호궁전	남궁 1호궁전, 북궁 1호궁전	남궁 1호궁전, 중궁 1호궁전, 북궁 1호궁전

〈그림 9〉 신라의 귀면와의 시기별 변화와 안학궁 유적 출토 귀면와

출처 : 윤용희, 『신라 귀면와의 문양 형식과 변천에 관한 일고찰』, 『영남고고학』 89, 2021, 240~243쪽; 김일성종합대학 고고학 민속학강좌, 『대성산의 고구려 유적』, 김일성종합대학출판부, 1973, 247~248쪽.

비고 : 윤용희 논문에서 각각 I 단계(7세기 말), II-3단계(8세기 말), III단계(9세기 전~중반), IV 단계(9세기 말 이후)를 가져옴.

안학궁 유적에서 출토된 귀면와는 형식적인 면에서 섬세함과 조형미가 크게 떨어진다. 귀면의 표정이 위엄과 거리가 멀고, 다소 장난스럽고 우스꽝스럽게 느껴지기도 한다. 이는 조형미가 크게 쇠퇴한 9세기 말 이후, 나말여초 시기의 귀면와 문양의 풍격과 상통하는 점이다. 안학궁 유적 출토 귀면와가 보이는 이러한 형태적 양상은 해당 유적이 고려 초인 10세기 중반에 조영되었다는 필자의 견해를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안학궁 유적 출토 와당의 대부분이 고려시대의 것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일부 고구려 때의 것으로 언급되는 것들도 있어 문제가 된다. 1989년 출간된 『조선유물유적도감3-고구려편(1)』에 수록된 2점의 와당과 谷豊信이 소개한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안학궁 유적 출토 와당 2점이 대표적이다.³⁵⁾ 그 외에도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발간된 『일본 소재 고구려 유물』 자료집에 안학궁에서 수집되었다고 전하는 몇 건의 고구려 와당이 더 소개되어 있다.³⁶⁾



〈그림 10〉 안학궁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하는 고구려 와당 추정 유물

출처 : 조선유물유적도감 편찬위원회, 『조선유물유적도감3-고구려편(1)』, 1989(영인본, 민족문화, 1993, 50~51쪽); 谷豊信, 『平壤遷都前後の高句麗瓦に關する覺書-東京國立博物館收藏資料の紹介』, 『MUSEUM(東京國立博物館研究誌)』 596, 2005, 11~15쪽.

비고 : 『조선유물유적도감3-고구려편(1)』에 수록된 것은 왼쪽 2점, 도쿄국립박물관 소장품은 오른쪽 2점.

하지만 안학궁 출토 ‘고구려 유물’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것이 세 가지 있다. 첫째, 상기한 와당들과 안학궁 유적 유구와의 상관성 문제이다. 치다 다케미치(千田剛道)는 해당 유물들이 ‘발굴품’이 아니라 ‘채집

35) 조선유물유적도감 편찬위원회, 『조선유물유적도감3-고구려편(1)』, 1989(영인본, 민족문화, 1993, 50~51쪽); 谷豊信, 『平壤遷都前後の高句麗瓦に關する覺書-東京國立博物館收藏資料の紹介』, 『MUSEUM(東京國立博物館研究誌)』 596, 2005, 11~15쪽.

36) 해당 유물들의 현황 및 출처, 사진 자료는 辛奇羅, 앞의 논문, 75~77쪽 참조.

품'이라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고구려 시대의 유적을 파괴하고 조영된 안학궁 유적에서 고구려 시대의 유물이 채집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므로, 유구와의 관련성이 분명하지 않은 자료를 활용해 유적의 연대를 논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다.³⁷⁾

필자는 발굴 유물이 아닌 채집품이라고 하더라도 유적의 연대를 추정하는데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안학궁 유적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하는 일부 유물의 경우 채집의 경위조차 다소 불분명하다는 점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조선유물유적도감3-고구려편(1)』에 실린 2점의 '고구려 와당'은 안학궁 유적에 대한 대규모 발굴 조사 후 이를 정리하여 출간한 1964년과 1973년의 보고서와 책자에서 소개되지 않았던 유물이다. 1989년 출간한 『조선유물유적도감3-고구려편(1)』에 별다른 설명 없이 다른 안학궁 출토 와당들과 함께 사진이 실렸을 뿐이다.

2006년 안학궁 유적에 대한 남북 공동 조사 이후 출간한 『고구려 안학궁 조사 보고서 2006』에는 북한 학자 김정삼이 집필한 안학궁 출토 수막새 무늬에 대한 글이 실려 있다. 여기서 그는 안학궁에서 확인된 수막새의 무늬가 22종이라 소개하면서도 정작 『조선유물유적도감3-고구려편(1)』에 실린 문제의 2점은 포함하지 않았다.³⁸⁾ 이러한 누락이 단순한 실수일 수도 있겠으나, 문제의 와당 2점이 정말로 안학궁 유적에서 수집된 것이 맞는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기도 하다. 해당 유물이 언제, 어떤 경위로 수집된 것인지, 그리고 안학궁 유적 어디에서 발견된 것인지조차 명확하지 않다. 발굴을 통해 확보한 유물이 아닐 경우, 유물을 입수하는 과정, 혹은 개인이나 기관이 다수의 유물을 분류·관리하는 과정에서 채집 장소에 대한 정보에 오류나 착종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자료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정보의 공개가 필요하다.

설령 해당 유물이 안학궁 유적에서 수집된 것이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대성산 남쪽 기슭 일대가 원래 고구려

37) 千田剛道, 앞의 논문, 76~77쪽.

38) 김정삼, 앞의 논문, 236~239쪽.

유적이 존재하는 곳임을 감안하면, 치다의 말대로 후대 건설된 안학궁 유적에 고구려 유물 일부가 섞여 나오는 현상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북한 학계에서는 1990년대 초반 청호동, 임흥동 안학궁 서쪽 일대에서 고구려의 도시 구획 흔적을 발견했다는 보고를 제출한 바 있다. 특히 안학궁성 서벽에서 서쪽으로 약 600m 되는 지점에 도로구획을 발견했다고 하며, 이 일대에서 고구려 시기에 해당하는 많은 기와와 건축용 석재, 질그릇 조각이 확인되었다고 하였다.³⁹⁾ 또한 2011년에는 평양민속공원을 건설하던 도중 안학궁 성벽의 서문에서 약 250m 떨어진 지점에서 7각형의 건축 유적이 확인되었다고 하였다. 보고자는 건축 유적에서 고구려 기와와 질그릇 조각들이 발견되었다고 전하며, 고구려 때 첨성대 유적일 것으로 추정하였다.⁴⁰⁾ 이 유적이 실제로 고구려 때 조영된 것이 맞는지, 그리고 유적의 성격이 천문 관측 시설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차후 정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성산 기슭 안학궁 유적 부근에 기와 시설을 동반한 별개의 고구려 건축 유적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둘째, 만약 안학궁 유적 하부에 고구려 유적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름 아닌 왕궁 유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매우 빈약하다는 점이다. 북한 학계에서는 안학궁 유적을 조사하면서 건축지가 포함된 문화층보다 하부에 존재하는 고구려 고분 문화층까지 확인한 바 있다. 그 아래 다시 별개의 궁전 문화층이 존재한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구려 와당으로 언급되는 유물들이 소량이나마 존재하므로, 고구려 시대의 왕궁 터 위에 다시 고려의 왕궁이 지어졌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는 있다.

안학궁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의 다수는 명백하게 후대(고려시대)의 것이다. 앞서 살펴본 수막새·암막새 기와뿐 아니라 이곳에서 출토된 토기류 다수가 통일신라시대 이후의 것으로 파악된다.⁴¹⁾ 따라서 이곳이 고구려 왕궁 터였을 것이라는 견해를 고수하고자 한다면, 유적의 중첩을 상정하는 수밖에

39) 한인호·리호, 「안학궁터 부근의 고구려 리방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1-4, 1991, 29~30쪽.

40) 정영성, 「새로 건설되는 평양민속공원에서 발굴된 고구려건축지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2011-4, 2011, 17쪽.

41) 중앙문화재연구원, 『고구려 고고학』, 진인진, 2020, 68쪽.

없다. 하지만 안학궁 유적을 그간 ‘고구려 왕궁터’로 인식하였던 것은 어디까지나 장대한 규모의 건축지와 와당 등의 유물을 고구려대의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소들을 제외하고 본다면 안학궁 유적의 하부 문화층에 ‘있을지도 모르는 고구려 유적’이 다름 아닌 왕궁 유적일 것이라는 근거는 ‘과거 지녔던 인식의 관성’ 외에 딱히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셋째, 안학궁 유적의 초축 시기를 고구려 시기로 상정하는 이들은 일부 유물의 존재에 주목하며 고구려 유적일 가능성을 제시하는 데서 논지 전개를 멈추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 유적이 고구려 때 초축되었다는 입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곳에서 출토된 대다수 물량의 후대 유물(고려시대)에 대해 충실하게 설명을 할 의무가 있다. 안학궁 유적이 고구려 유구 위에 고려 유구가 중첩된 것이라면, 고구려 유구와 고려 유구는 어떻게 구분되며, 고려 유구가 조영된 시기는 언제이고, 그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이 제시되어야 한다.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막연한 가능성에 집중하면서, 정작 실물 자료가 다수 확보된 중심 유물에 대한 해석을 소홀히 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

필자는 안학궁 유적이 고려 정종대의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문헌적 근거는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인데,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므로 『고려사』만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가-1. 서경에 왕성을 쌓았다.

『고려사』 세가 권2, 정종 2년(947) 봄⁴²⁾

가-2. 왕의 병환이 위중해지자 동복아우 昭를 불러 왕위를 넘기고 帝釋院으로 거처를 옮겼다가 홍서하였다. 재위 4년이며 나이는 27세였다. 왕의 성품이 부처를 좋아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많아서, 처음에 圖讖에 따라 西京으로 도읍을 옮기기로 결정하고 장정들을 징발하여 시중 權直에게 궁궐을

42) 『高麗史』世家 卷2, 定宗 2年 春, “築西京王城.”

조영하게 하였다. 노역이 쉴 틈이 없고, 또 개성의 민호를 뽑아 그곳에 채우니, 사람들의 마음이 불복하였고 원망과 비방이 많이 일어났다. **왕이 홍서함에 役夫들이 들고 기뻐 날뛰었다.**

『고려사』 세가 권2, 정종 4년(949) 3월 병진⁴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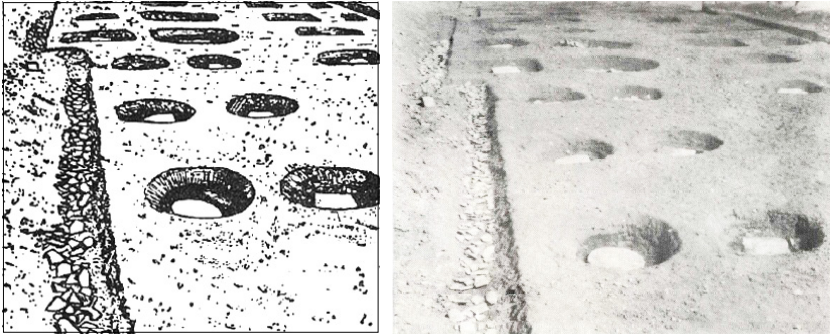
정종은 집권 과정에서 권신 왕규를 제거하기 위해 서경의 왕식렴 세력과 결합하였다. 그리고 집권 이후에는 자신의 세력 배경인 서경으로의 천도를 결심하고 서경에 왕성과 궁궐을 조영케 하였다. 정종이 서경에 왕성을 쌓게 한 것은 947년(정종 2) 봄이며 그가 사망한 것은 949년(정종 4) 3월의 일이다. 정종의 사망 소식을 듣고 계속되는 쟁역에 원망을 품고 있던 역부들이 기뻐 날뛰었다는 기록을 보면, 약 2년의 시간을 들였음에도 여전히 궁궐 조영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정종대 서경에 왕성·궁궐을 조영하였던 것이 대규모 역사였음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필자는 이 기록이 안학궁 유적의 조영을 가리키는 것으로 판단한다.

해당 기록은 안학궁 유적의 장대한 규모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준다. 과거 다니카가 제기하였던 문종대(1081년, 문종 35) ‘서경 좌궁설’은 안학궁 유적이 별궁 내지 행궁에 불과함에도 개성의 고려 왕궁보다도 규모가 크다는 점에 대해 설명이 어렵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정종대 폐궁설에 따르면 안학궁 유적은 서경으로의 천도를 전제로 정궁으로서 조영된 것이므로, 개성의 왕궁을 능가하는 규모는 자연스럽게 납득할 수 있다. 유적의 거대한 규모에 비해 정작 『삼국사기』나 『고려사』 등의 문헌에서 해당되는 왕궁의 이름을 찾을 수 없는 기묘한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이 가능하다. 애초에 미완성 상태에서 폐기되었기 때문에 궁의 이름도 존재할 수 없었던 것이다.

‘고려 정종대 폐궁설’은 앞서 살펴본 대로 안학궁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들의 편년과 잘 부합한다. 북한 학계에서는 안학궁 유적에서 청자 조각이 일체

43) 『高麗史』世家 卷2, 定宗 4年 3月 丙辰, “王疾篤 召母弟昭內禪 移御帝釋院龕 在位四年 壽二十七 王性好佛多畏 初以圖讖 決議移都西京 徵發丁夫 令侍中權直 就營宮闈 勞役不息 又抽開京民戶以實之 群情不服 怨讟胥興 及薨 役夫聞而喜躍.”

발견되지 않은 점을 들어 고려시대 축조설을 부정하기도 하지만,⁴⁴⁾ 이 왕궁이 미완성 상태에서 폐기되어 제대로 실사용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 그리고 정종대는 고려에서 청자의 생산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이전 시기라는 점까지 감안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⁴⁵⁾



〈그림 11〉 안학궁 유적 북궁 3호 궁전터의 기와 출토 상태

출처 : 전제현·손량구, 『고구려력사연구-안학궁유적과 일본에 있는 고구려관계 유적, 유물』,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5, 99쪽; 김일성종합대학 고고학 민속학강좌, 『대성산의 고구려 유적』, 김일성종합대학출판부, 1973, 182쪽.

북한 학계에서는 안학궁 유적의 장대한 규모에 비해 실제 출토된 유물의 종류와 수량은 기대와 달리 매우 적다고 평가한 바 있다.⁴⁶⁾ 대건축군인데도 건축에 사용한 부재가 대단히 적게 출토되었고, 기와만 하더라도 궁전마다 수천 장은 나왔어야 하는데, 깨어진 조각으로 수백 점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나마 많이 나온 유물이 기와이며, 질그릇 같은 유물은 소량에 불과하다고 하였다.⁴⁷⁾

44) 리광희, 앞의 논문, 230쪽.

45)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청자 개시 시기를 통일신라 말인 9세기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문헌 기록이나 편년 유물이 충실하게 확보된 것은 아니었다. 이에 오대~북송초 월주요의 영향을 받았다고 본 ‘고려 초 개시설(10세기 후반설)’이 제기되어 대립하게 되었다. 필자는 이 문제를 자세히 논할 수 있는 지견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 다만 배천군 원산리 유적에서 출토된 ‘淳化三年(992년)’과 ‘淳化四年(993년)’명 청자편이 지금까지 확보된 가장 이른 시기의 청자 편년 유물로 알려져 있다(이종민, 『고려초 청자생산 중심지의 이동과정 연구』, 『역사와 담론』 58, 2011, 273~274쪽; 이영문, 『고려시대 도자사의 최신 연구 동향』, 『지역과 역사』 45, 2019, 369쪽).

46) 전제현·손량구, 앞의 책, 44~45쪽.

또한 유적에 붙어 탄 흔적 등 전란으로 파괴된 흔적이 전혀 없다고 하면서, 기와 조각들이 처마 밑에 집중적으로 쌓여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기와를 인위적으로 털어서 폐기한 흔적으로 보인다는 해석도 제시되었다.⁴⁸⁾ 물론 이러한 이야기는 586년 장안성으로의 이도와 연관 지어 설명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장대한 유적 규모와 상반되는 출토 유물의 빈약함, 그리고 왕궁의 인위적 폐기 흔적 같은 요소는 안학궁 유적을 고려 초 정종대의 미완성된 폐궁으로 보는 필자의 견해와도 정확히 합치되는 것이다.

4. 맺음말

이 글에서는 안학궁 유적이 고려 초에 조영된 것이라는 관점에서 기존의 고구려 축조설을 비판하였다. 일제 시기에 작성된 지도와 구글어스를 활용하여 대성산 및 안학궁 일대의 현재 지형과 유적의 분포 양태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였다. 북한 학계의 발굴 보고서와 과거의 발굴 조사 참여자의 회고담을 통해 안학궁 중궁 일대에서 확인한 10여 개의 고구려 고분군의 존재를 재확인하였으며, 안학궁 유적의 건축군과 고분군의 시간적 선후 관계와 상관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역시 안학궁 건축군은 역시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고구려 고분군을 파괴하고 조영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고구려인들이 자신들이 조영한 왕도의 중심 묘역을 파괴해 가며 그 한가운데 왕궁을 만드는 상황은 생각하기 어렵다. 고분군 조영 집단과 왕궁 조영 주체 간에 보이는 정서적 단절성은 안학궁 유적이 고려시대에 축조되었다고 볼 수 있는 중요한 방증 자료이다.

안학궁 유적에서 출토된 기와 유물들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고구려 시기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글에서는 그중에서도 귀면와의 문양이 나말여초 시기의 퇴영적 모습과 상통한다는 점을 재차 지적하였다. 안학

47) 리광휘, 앞의 논문, 215쪽.

48) 전제현·손량구, 위의 책, 98~99쪽.

궁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 중에는 고구려 시기의 것으로 볼 수 있는 기와가 일부 존재하지만, 그것만으로 안학궁 유적의 고구려 축조설을 증명하기는 어렵다. 안학궁 유적에서는 고려시대의 것으로 여겨지는 유물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중심 유물로서의 지위를 점하고 있다. 소량의 고구려 유물은 인근의 고구려 유적에서 혼입된 것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설사 안학궁 유적 아래 고구려 유구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왕궁 유적’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근거는 빈약하다.

안학궁 유적을 고구려 시대의 것으로 보아 온 시간이 오래되었던 만큼 과거 인식의 관성을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고구려 왕도·도성 연구의 진전을 위하여 과감하고 전향적인 태도로 기존의 자료들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지면 관계상 안학궁 유적 성벽의 축성법에 대한 검토, 건축물의 형태와 배치에 대한 분석, 다른 고려시대 왕궁 건축물과의 비교 등의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이는 별고를 통하여 상세하게 다룰 예정이다.

■ 참고문헌

『高麗史』 『新增東國輿地勝覽』.

고구려연구재단, 『고구려 안학궁 조사 보고서 2006』, 고구려연구재단, 2006.

김일성종합대학 고고학 민속학강좌, 『대성산의 고구려 유적』, 김일성종합대학출판부, 1973.

東潮·田中俊明, 『高句麗の歴史と遺跡』, 中央公論社, 1995(박천수·이근우 역, 『고구려의 역사와 유적』, 동북아역사재단, 2008).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고구려의 성곽』(조선고고학전서27-중세편4), 진인진, 2009.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고구려의 건축』(조선고고학전서28-중세편5), 진인진, 2009.

전제현·손량구, 『고구려력사연구-안학궁유적과 일본에 있는 고구려관계 유적, 유물』,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5.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조선유물유적도감3-고구려편(1)』, 1989(영인본, 1993).

채희국, 『대성산 일대의 고구려 유적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원출판사, 1964.

濱田耕作·梅原末治, 『新羅古瓦の研究』, 京都帝國大學, 1934.

井內古文化研究室 編, 『朝鮮瓦塼圖譜VI-高麗李朝』, 井內古文化研究室, 1978.

朝鮮總督府, 『高句麗時代之遺蹟 圖版 上冊(古蹟調査特別報告 第5冊)』, 1929.

千田剛道, 『高句麗都城の考古學的研究』, 北九州中國書店, 2015.

강현숙, 『평양 안학궁, 대성산성 시기 왕궁 주변 고구려 고분의 고고학적 함의』, 『韓國上古史學報』 105, 2019.

김경삼, 『안학궁터에서 나온 수기와 막새 무늬에 대하여』, 『고구려 안학궁 조사보고서 2006』, 동북아역사재단, 2006.

남일룡, 『고구려안학궁성건축의 특징에 대한 몇가지 고찰』, 『조선고고연구』 2006 - 2, 2006.

_____, 『안학궁성에 대한 몇 가지 고찰』, 『고구려 안학궁 조사보고서 2006』, 동북아역사재단, 2006.

리광휘, 『기와와 질그릇을 통해 본 안학궁의 존속연대』, 『고구려 안학궁 조사보고서 2006』, 동북아역사재단, 2006.

_____, 『대성산성, 안학궁성의 건설과 그 역사적의의』, 『김일성종합대학학보(역사, 법률)』 64 - 3, 2018.

리영식, 『안학궁터에서 알려진 고구려 무덤들의 축조연대에 대하여』, 『고구려 안학궁 조사보고서 2006』, 동북아역사재단, 2006.

閔德植, 『高句麗 平壤城의 都市形態와 設計』, 『高句麗研究』 15, 2003.

朴淳發, 『高句麗의 都城과 墓域』, 『韓國古代史探究』 12, 2012.

朴恩卿, 『高麗 瓦當文樣의 編年 研究』, 『考古歷史學志』 4, 동아대학교 박물관, 1988.

辛奇羅, 『안학궁 유적의 연대 문제 재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원 문화유산융합과 석사학위논문, 2021.

양시은, 『고구려 도성 연구의 현황과 과제』, 『高句麗渤海研究』 50, 2014.

李道學, 『『三國史記』의 高句麗 王城 記事 檢證』, 『韓國古代史研究』 79, 2015.

임기환, 『고구려 都城制의 변천』, 『한국의 도성-都城 造營의 傳統-』,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서울학연구소,

2003.

임기환, 「고구려 평양 도성의 정치적 성격」, 『韓國史研究』 137, 2007.

_____, 「고구려 평양도성 논의에 대한 재검토」, 『고구려발해연구』 70, 2021.

전제헌, 「안학궁터 발굴의 나날을 더듬어 보며」, 『고구려 안학궁 조사보고서 2006』, 동북아역사재단, 2006.

정영성, 「새로 건설되는 평양민속공원에서 발굴된 고구려건축지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2011 - 4, 2011.

주흥규, 「고구려 기와의 분류와 특징에 관한 일고찰」, 『先史와 古代』 41, 2014.

谷豊信, 「平壤遷都前後の高句麗瓦に関する覺書-東京國立博物館收藏資料の紹介」, 『MUSEUM(東京國立博物館研究誌)』 596, 2005.

關口廣次, 「瓦當文様雜考-高句麗の瓦當文様を中心として」, 『考古學ジャーナル』 285, 1987.

關野貞, 「國內城及丸都城の位置」, 『史學雜誌』 25 - 11, 1914.

_____, 「高句麗の平壤城と長安城に就いて」, 『史學雜誌』 39 - 1, 1928.

永島暉臣慎, 「高句麗の都城と建築」, 『難波宮址の研究7-論考篇』, 大阪市文化財協會, 1981.

田中俊明, 「高句麗の平壤遷都」, 『朝鮮學報』 190, 2004.

田村晃一, 「高句麗の山城-大聖山城の場合」, 『月刊考古學ジャーナル』 121, 1976.

_____, 「高句麗の寺院址に関する若干の考察」, 『中国史・陶磁史論集-佐久間重男教授退休記念』, 燎原, 1983.

_____, 「高句麗の城郭について」, 『百濟研究』 19, 1988.

千田剛道, 「清岩里廢寺 安鶴宮」, 『文化財論叢 : 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創立30周年記念論文集』, 同朋社, 1983.

_____, 「高句麗・高麗の瓦-平壤地域を中心として」, 『朝鮮の古瓦を考える』, 帝塚山考古學研究所, 1996.

_____, 「高句麗都城研究と平壤安鶴宮遺跡」, 『文学・芸術・文化: 近畿大學文学芸学部論集』 22, 2011.

_____, 「高句麗の前期平壤城と清岩里土城」, 『文学・芸術・文化: 近畿大學文学芸学部論集』 23, 2012.

Review of the Issues of the Construction Period and Character of Anhak Palace Ruins in Pyongyang

Ki, Kyoung-ryang*

Anhak Palace ruins are located in Anhak-dong, Daesong District, Pyongyang City. The ruins have long been considered a palace of the Goguryeo period; however, a theory of the construction during the Goryeo came to the fore by Japanese academia, and a dispute over that is developed. The author understands Anhak Palace ruins as a royal palace that was built and then discarded in the process in which King Jeongjong of the Goryeo Dynasty (Reign : 945-949) would move the capital to Seogyeong.

Tombs of Goguryeo have been found on the cultural layer in the lower part of the building of Anhak Palace ruins. Three tombs were explained through reports from North Korean academia, but a dozen burial mounds were found, referring to the reviews of the excavation, and the location is the center of the palace's architectural site. Thus, it is clear that some ancient tombs of Goguryeo spread at the foot of Daeseongsan Mountain were destroyed, and the royal palace was built on them.

Most of the male roof-end tiles and female roof-end tiles excavated from Anhak Palace ruins cannot be considered those of the Goguryeo period, but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them the tiles of the Unified Silla period to the Goryeo period. Some tiles can be considered those of the Goguryeo period; however, they are only a small quantity, and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em

* Associate professor, The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at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as mixed objects because the Anhak Palace area is the center of the site of Goguryeo ruins.

Key words: Anhak Palace, roof-end tiles, a palace of the Goryeo, King Jeongjong